

“맹렬여성이라고요? 속 팍 찬 불자예요”

NGO 여성불자 활동가

정선애 위정희 윤주옥

참여정부의 첫 내각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여성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활동가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시민단체에서 부드러움과 섬세함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시민운동단체를 이끌어 가는 30대 여성불자 세 명을 만났다.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펴고자 하는 그들의 에너지가 ‘개인’ 차원에 머물러있지 않고 ‘사회화’ 될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불자로, NGO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늘 '소수'의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능력은 기본, 사명감은 필수다. 왼쪽부터 정선애, 위정희, 윤주옥 씨.

“문제점 파악 위해 항상 현장에 불자들 시민단체 더 많은 참여를 여성들 끊임없이 자기개발 하세요”

▶나는 NGO 활동가

위정희(3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199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에서 활동했다가 다시 경실련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개별 기구에 대한 자원 역할과 민주시민교육포럼 등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정선애 씨

정선애(38·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저 역시 1996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다가 99년 몇몇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적 대안마련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지요. 처음으로 인터넷을 시민참여의 장으로 만들고 네티즌들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윤주옥(39·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대학생 때 노동운동부터 시작했어요. 화장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몇 년 일하다가 94년 딸아이를 가진 후부터 환경운동에 눈을 뗐죠. 지금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서 '지금 있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로서의 나는?

정선애= NGO 활동가라면 항상 현장에 있어야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시민들의 참여가 쉬워졌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위정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여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의견도 잘 들어야 하고 우리 입장도 제대로 전달해야 하니까요.

▶불자로서의 정체성

위정희= 불교는 내 사상과 가치관의 기반을 이루는 토대입니다. 틈틈이 초기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육성을 느끼려고 하죠. 아무래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설립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고 활동가들도 불자가 수적으로 '엄청난 소수'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요. 일반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불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선애= 고등학교, 대학교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를 보게 됐어요. 확장시절 '민중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자연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때 부처님

합니까. 그럼으로써 사회를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할까? 경부에서 활동할 때 IMF 직후 서울역에 노숙자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갈 곳 없는 이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소문 공원에 노숙자 지원센터를 세웠어요. 대학원(연세대 사회 복지대학원)을 간 것도 '복지'라는 것이 실제 내 이웃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윤주옥= 저는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국립공원 보존운동에 주민들의 지지를 참



◇위정희 씨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불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윤주옥= 환경운동을 하다보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불교와 생태운동, 환경운동의 접합점을 찾아내고 싶은거죠.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도법 스님과 수행 스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님들을 무척 편하게 생각하는데 반해 저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스님'이라서 그런가요?(웃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어요.

▶여자로서 산다는 것

위정희= 가장을 꾸리고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맞벌이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지요. 또 현재 시민단체의 리더 입장에 서있는 여성이 많지 않잖아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으니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정선애= 활동가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남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여성으로서 그 문화에 적응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바뀌어나가려는 노력도 하고...

윤주옥= 여자라서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출장 갈 때면 가족들



◇윤주옥 씨

이 걱정을 하죠. 결국 저 스스로 담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 NGO의 역할

윤주옥= 시민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부상한 이후 NGO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흔히들 요즘을 'NGO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불과 2-30년 전보다 훨씬 더 분화되고 전문화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위정희= 맞아요. NGO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고 더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활동가가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정선애= 단체들이 다루는 문제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추구해야 하는 공동의 가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단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죠.

▶일은 내 삶의 의미

정선애= 제 좌우명이 '사명감에 살고 사명감에 죽는다'예요.(웃음)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순간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요. 윤주옥= 환경운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즐겨워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지요.

위정희= 나의 열정과 이상이 조직의 이상과 맞아 떨어질 때, 일하는 '맛'이 납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있는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겠죠?

글=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 박재현 기자 jwpark@buddhapia.com

세계최고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영험의 염주



잡귀와 악귀를 물리치는 금강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어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잠깐 안거 하신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봉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상륙광선과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량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게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98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람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7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봉인하여 올려놓고 3일 후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악운을 날려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지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반려물 수송을 할때는 반드시 유해물(화기)로 분류하여 포장된 후 배송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177 대원 B/D406호